

曹 珦 先生님

「晩學이여서 5~6歲 아랫나이의 同窓들과 어울이다 보니 恒常 젊어진 氣分속에서 生活하게 된다」고, 나이에 比해 젊어 보인다고 말을 건넌 萬壽無疆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나 꼭 나이가아랫분들과 어울려서 젊어보이는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50歲를 조금 넘었을때 모진 病苦를 치뤄 거의 死境을 헤치고 있을때 跆拳道를 하면 回春한다는 말에 끌려 정신없이 하다보니 健康도 回復되고 2段까지 따냈다. 그러나 너무 彼困해서 比較的 輕運動이라고 할 수 있는 「요가」를 하기로 작정하고 요가書籍을 購入 耽讀하면서 實技를 익혀나갔다. 이렇게 해서 於焉 12年, 이제는 健康에 全然 神經을 쓰지 않음은 勿論 오히려 健康過剩狀態이어서 요가 研究所를 차리고 손수 師範을 하시고 계시다. 終日 患者를 보아도 心身兩面에 바란스가 유지되어 조금도 彼勞를 모르신다니 젊어 보일 수 밖에.....

26歲에 京齒專에 入學, 齒科醫師가 되었고 晩學이 宿命인지 63歲에 醫學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在學中에는 日人들의 差別教育으로 울분을 삼켜 가며 學業을 마쳤다. 補綴實習때에도 교수나 조수가 거의 전혀 돌보아 주지 않았다.

自然發生的으로 韓國人 學生끼리 同窓會를 組織 秘密히 中國집을 利用하여 모임을 갖고 差別對遇에 對한 集團抗議를 했으나 건방지다는 理由로 別 所得이 없었다.

齒科醫師로서 첫 勤務處가 光州 濟衆病院 齒科였다. 外國人에 依해 運營되는 이 病院에서 勤務를 하면 美國에 갈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2次 大戰 末期 外國人 追放令에 依해 病院이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開業했다.

당시도 Shofu나 Morida製 器材를 使用했으나 質은 그리 시원치 않았다.

開業을 하면서 느낀 患者에의 不滿은 “공연히 아는체를 많이 하고 治療費를 받드시 깎으려고 든다”는 것이다. 外國人은 絶對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하루速히 是正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心身健康의 關鍵은 誠實하고 모든것을 寬容과 理解로서 處理하며 어려움을 웃음으로 克服하여야 늙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曹珦先生님은 先後輩를 分別할줄 아는 齒科醫師가 되어야겠다고 強調하신다.

2男 4女中 長男<조의현>은 齒科醫師로서 朝大齒대에 專任講師로 있으며 사위 3명이 모두 醫師이다. 曹先生님은 1940年 京齒專을 卒業하신後 濟衆病院, 光州에서 開業, 光州市會長, 全南道會長을 歷任하시면서 齒科醫學界發展에 많은 寄與를 하셨으며 1967年 保健社會部長官 賞을 受賞한 바 있다.

醫學博士 曹 珦 1910.5.12生(當年 67歲)
光山齒科醫院 院長
光州市 東區 錦南路 5街 168 ③ 5315



KUM KANG
Dental Lab.

移轉盛業中입니다

(21) 0673 (21) 0095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